

생활방역 등 공공일자리 1만2천여개 창출

광주시 지원센터 본격 가동
자치구 협력·채용·예산 관리
1·2단계 사업 643억원 투입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광주시 시민공공일자리지원센터가 본격 가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1층 시민숲 시민공공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정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나성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했다.
시민공공일자리 지원센터는 지난 8일 이용섭 시장이 공공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제5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이후 이정상 전 광산구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13일부터 시청 1층 시민대화방 옆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공공일자리 지원센터는 광주 5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의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채용, 홍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공공일자리 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1,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사업인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은 생활방역단과 대중교통시설방역단, 열감지기운영, 생활치료센터운영 등 4개 사업으로 33억원에 투입해 시민

764명을 채용한다.
지난 17일 인터넷 접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현장 접수를 병행했으며, 총 1939명의 시민이 지원했다. 최종 선발인원은 오는 5월 12일 발표하며, 사업에 따라 2~3개월 동안 하루 4~5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2단계 사업으로는 민생안정 18개 분야에서 599억원을 투입해 1만13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도시환경 정비 등 시가지 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지킴이, 아동센터 지원 등으로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된 경우 추가로 일자리를 늘린다. 6~12월 중 진행되며, 사업에 따라 3~7개월간 운영된다. 최저 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원된다.
시는 이와 함께 여행업·관광속박업·관

광운송업·공연업 등 특별고용 지원 업종, 제조·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2000명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와 기존 시 예산 조정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한다.
이용섭 시장은 "그동안 시가 발표한 다양한 민생안정대책들이 일시적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1만2000명 이상을 채용할 시민공공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코로나19 극복 성금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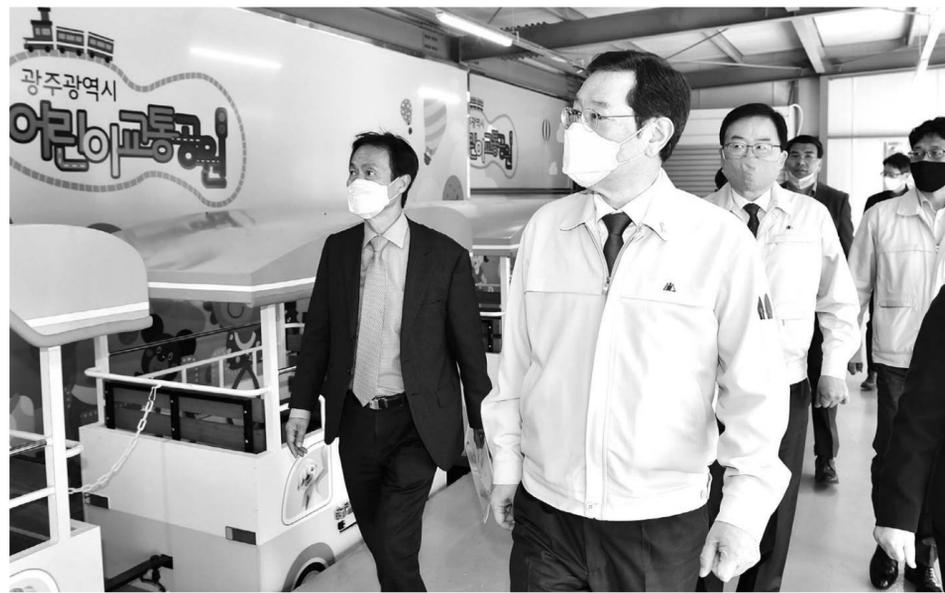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4일 오후 광주 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빛고을·효령타운 등 재단 직원 100여명이 실시한 모든 모금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김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단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은 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

기 바란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선한 기부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2일 수혈이 필요한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모든 직원이 헌혈과 성금모금활동에 참여했다.
복지재단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 19개 수행기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생필품과 직접 제작한 천 마스크, 꽃 화분 600개를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전면 재조성한다

주시장, 현장경청 의견 수렴

광주시가 낡은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을 전면 재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시설이 어린이 교통공원과 유치공원 내 드라이브 스쿨 등으로 한정돼 있어 상 당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북구 오룡동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제15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 경청의 날은 시장이 고충 현장을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권익위원회에 자문해 해법을 도출하는 소통창구다.
이번 '현장 경청의 날'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문인 북구청장, 표범식·이정철 북구의원, 시민권익위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공원을 수탁 운영 중인 사단법인 광주교통문화연구원은 이날 "광주가 유네스코 선정 어린이 진화도시에 걸맞은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최신 흐름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원이 새로 조성되도록 검토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교통문화를 체험하고 교육받는 최적의 시설을 갖춘 공원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원은 1998년 건립돼 2012년부터 교통문화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다. 교통과 관련한 교육 시설, 실외 미니 열차 등 체험 시설을 갖춘 연간 2만5000여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광주 북구 오룡동 어린이교통공원을 방문해 내부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통해 과제 210건 발굴

전년 128건 대비 64% 늘어
10월 우수과제 20개 심사 선정
광주시는 "지난 2월19일부터 4월1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20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해 21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국민복지 81건 ▲일상생활 101건 ▲취업·일자리 5건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21건 ▲신산업 2건 등으로, 지난해 128건 대비 64%나 늘었다.

발굴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 심사와 국민투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20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되며, 우수제안자는 시상금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지나해에는 광주시 '사회복지시설도셔틀 운행 허용' 과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과제 중에는 타이어 전문점 휠발란스 및 얼라이먼트 정비 합법화를 위한 '타이어전문점 정비업 등록기준 마련' 등 참신한 과제들이 눈길을 끈다.

휠발란스 및 얼라이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사업자만 정비 가능하지만, 대부분 타이어전문점(일반사업자)에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민생규제 혁신 과제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며 "시민 참여증가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사고 안전운행 운전원에 월5만원 인센티브

광주시 법인택시 324명 대상
광주시가 장기근속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원에게 행복채움사업으로 월 5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 3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원 324명에게 1년 동안 월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복채움사업은 승객 감소에 따른 낮은 급여와 택시 공급 과잉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마저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인택시 근로자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선 법인택시 회사에 취업해 의무적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택시 공급 과잉지역 지정에 따라 2015년부터 신규면허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기 성실 무사고 택시운전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행복채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광주 200대 '탄소 포인트제'로 지급된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감축 실적에 비례해 2만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현금 계좌 또는 광주 상생 카드

가입 대상은 광주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로 전국 6000대 가운데 광주에는 200대가 해당됐다.
참여를 희망하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 신청하면 된다. 회원 가입 시 자동차 번호판, 계기판, 자동차 등록증 사진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